

국가별 entrepreneurial activity의 type과 level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사회보장제도와 국가문화의 역할

송창현*, 김연배**

1. 서론

국가 전체적으로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가지는 의미는 경제발전 및 고용촉진 등 다양한 이슈에서 최근 들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창업가정신이 최근 들어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및 정책입안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창업이 한 국가의 고용 문제 및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단위(national level)에서 무엇이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국가마다 창업의 질적, 양적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비교적 오랜 기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Pinillos and Reyes, 2011). 과거에는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창업의 양적 지표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양적, 질적 지표가 다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 수준만으로는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Wennekers et al., 2007). 따라서 그 외의 다른 설명변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적 요인(Hofstede et al., 2004)과 사회 제도(Hessels et al., 2008)이다. 문화는 상대적으로 잘 변하지 않지만(Noordervan et al., 2004), 사회 제도는 적절한 정책의 수립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가별 문화의 특성과 이에 알맞은 사회 제도의 조합이 어떻게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2. 문헌고찰

2.1. 사회보장제도와 entrepreneurship

* 송창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 010-8415-8514, ironfist@snu.ac.kr

** 김연배,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부교수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 국가 내에서의 창업 현황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도적 성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strin et al., 2013). 사회 제도는 한 국가 내에서 개인이 취업 등 다른 옵션 대신에 창업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국가 수준에서 entrepreneurial activ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학적인 요인 외에도 기술적,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arrangement)는 지금까지 가장 주목을 덜 받아왔다(Hessels et al., 2007). 과거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이 해당 국가의 창업 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문헌들은 다수 있었지만(Henrekson, 2005; Hessels et al., 2007), 실증 분석 결과가 많은 것은 아니다.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복지 제도는 창업을 함에 있어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결론이 우세하다(Henrekson, 2005; 2007). 사회보장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공공의 재원을 통해 어느 정도 틀 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창업 기업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혁신과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Hessels et al., 2008).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함으로써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Hessels et al., 2007). 또 사회 전반에 장기적으로 복지 제도에 대한 투자가 누적되면 이것은 인적 자원 개발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노동 공급에 기여한다(Mares, 2007). 노동시장에 양질의 인력이 풍부할 때,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 기업의 탄생도 활발해질 것이다. 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들이 혼재해 있다.

한편,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데이터에서는 창업을 생계형(Necessity-driven) 창업과 기회형(Improvement-driven) 창업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취업 등의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불가피하게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Bosma and Harding, 2007). 이처럼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기업과 일반 창업(자영업 포함) 기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성장 벤처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경제 발전, 고용 등) 창출의 잠재력에 기인한다. 실제로 기회형 창업은 고기술, 고성장 벤처기업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Hechavarria and Reynolds, 2009). 이 같은 구분은 정책 입안자에게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은 고성장 벤처만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경우 특히 지원에 따른 고용 효과가 미비하다고 알려져 있다(Estrin et al., 2013).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을 구분하여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생계를 위한 단순 창업(자영업 등)은 줄어들지만, 창업자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형 창업은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Hypothesis 1: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국가별 entrepreneurial activity level에 미치는 영향은 entrepreneurial activity type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Hypothesis 1-1: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생계형(Necessity-driven) 창업은 감소할 것이다.

Hypothesis 1-2: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회형(Improvement-driven) 창업은 증가할 것이다.

2.2. 사회보장제도와 국가 문화가 entrepreneurship에 미치는 영향

과거 일련의 연구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이 주요한 요인임이 밝혀진 바 있지만, 같은 경제 수준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엄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경제 수준 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활발했는데, 특히 국가 문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국가 문화를 6가지의 dimension으로 제시하여 많은 연구들의 시작점이 되어 온 Hofstede(1980)의 기념비적인 연구를 기점으로, 국가 문화와 각종 entrepreneurship 현상들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록 Hofstede (1980)가 국가 문화와 창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의 관련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Hofstede가 국가 문화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의 창업가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Hofstede의 국가 문화 지수가 창업가적 행동과 관련이 높은 문화적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Mueller and Thomas, 2001).

국가 문화와 창업과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논문들은 위험회피성(uncertainty avoidance)과 개인주의(individualism) 두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Salimath and Cullen, 2010). Hofstede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그 사회가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개념이고, 위험회피성은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체계가 불확실성 및 위험을 얼마나 용인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련의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entrepreneurial activity의 정도는 개인주의와는 양의 관계를, 위험회피성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가 문화 요인이 다른 설명변수와 비교해서 주된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우선 Hofstede의 변수 설정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데, Hofstede가 제시한 문화적 차원이 국가간 창업 비교를 위한 도구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오래 전(1970년대)에 수집된 설문이라는 점에서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Hechavarria and Reynolds, 2009). 그런 점에서 국가 문화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Salimath and Cullen (2010)에 따르면 기존 entrepreneurship 연구에 있어 제도의 영향을 본 연구들과 문화의 영향을 본 연구들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이 둘은 사실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창업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제도와 문화는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는 분명한데,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논의들이 매우 부족하다.

창업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이다. 각 국가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은 개인에게 있어 큰 위험이 따르는 일생 일대의 중요한 결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성이 큰 문화일수록 창업과 같은 위험한 선택을 덜 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험 부담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창업이라는 활동에 내재해 있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창업과 개인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문헌들을 보면,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동기와 가치가 공동체보다 우선하며 개인의 성취가 여러 사회적 행동의 주된 동기가 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고 개인이 들이는 노력의 차이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입을 위한 개인의 경제활동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내적, 외적인 인센티브 측면에서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Hypothesis 2: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국가별 entrepreneurial activity level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문화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ypothesis 2-1: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기회형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회피성(Uncertainty avoidance)이 높을수록 클 것이다.

Hypothesis 2-2: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기회형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강할수록 작을 것이다.

3. 자료 및 연구 방법

이 section은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1 자료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가의 entrepreneurial activity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TEA 및 관련 변수들은 GEM으로부터 가져왔고, 국가별 cultural dimension index는 Hofstede의 연구에서 가져왔다.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데이터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1인당 GDP 등 경제발전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는 World Bank에서 가져왔다.

GEM 데이터의 경우 1999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고, 국가별 entrepreneurial activity level을 나타내는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값은 변동이 적어서 해당 국가의 경제적 특성으로까지 간주할 수 있다(Pinillos and Reyes, 2011). 해가 갈수록 조사 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터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OECD 데이터와의 상호 매칭을 위해 GEM 데이터 역시 OECD 국가들에 한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3.2 변수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TEA) at the national level: GEM adult population survey에서는 18~64세 사이의 성인들 중 새로운 벤처를 세웠거나 42개월이 채 안된 기업의 소유 또는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서 TEA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것을 생계형(Necessity-drive) 창업과 기회형(Improvement-driven) 창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생계형 창업의 경우, 취업이나 다

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창업을 한 경우를 일컫고, 기회형 창업의 경우 스스로가 사업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을 한 경우를 지칭한다.

위험회피성(Uncertainty avoidance)과 개인주의(Individualism): Hofstede가 제시한 cultural dimension은 총 6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entrepreneurship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individualism과 uncertainty avoidance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두 변수 모두 값은 0부터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약 100여 개 국가에 대해 수치화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 수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회 지출의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34개 OECD 국가에 대해 1980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고령, 실업, 건강, 주거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GDP per capita at the national level: 국가별 1인당 gross domestic product 데이터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로부터 가져왔다.

3.3 연구모형

위에서 서술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TEA = a + bSOCX + e$$

$$TEA_{NEC} = a1 + b1SOCX + e$$

$$TEA_{OPP} = a2 + b2SOCX + e$$

위 가설에 따르면 b1의 부호는 음이고, b2의 부호는 양이 된다.

$$TEA_{OPP} = a3 + b3SOCX + c3UAI + d3SOCX*UAI + e$$

$$TEA_{OPP} = a4 + b4SOCX + c4IDV + d4SOCX*IDV + e$$

여기에서는 d3는 양, d4는 음이 된다.

〈참고문헌〉

- Bosma, N. and Harding, R. (2007).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6 executive report. Babson Park, MA, USA and London, UK: Babson College and London Business School
- Estrin, S., Korosteleva, J. and Mickiewicz, T. (2013). Which institutions encourage entrepreneurial growth aspira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564-580
- Hechavarria, D. M. and Reynolds, P. D. (2009). Cultural norms and business start-ups: the impact of national values on opportunity and necessity entrepreneur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Journal*, 5:417-437
- Henrekson, M. (2005). Entrepreneurship: a weak link in the welfare stat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4(3), 437-467.
- Henrekson, M. (2007). Entrepreneurship and institutions. Available at SSRN 996807.
- Hessels, J., Van Gelderen, M. and Thurik, R. (2008). Drivers of entrepreneurial aspirations at the country level: the role of start-up motivations and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Journal*, 4:401-417
- Hessels, J., Van Stel, A., Brouwer, P. and Wennekers, S. (2007). Social security arrangements and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 Hofstede, G. (1980). Culture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10(4), 15-41.
- Hofstede, G., Noorderhaven, N. G., Thurik, A. R., Uhlaner, L. M., Wennekers, A. R., and Wildeman, R. E. (2004). Culture's role in entrepreneurship: self-employment out of dissatisfaction.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culture: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progress and economic growth*, 162-203.
- Mares, I. (2007).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0(2/3): 65-81
- Mueller, S. L., and Thomas, A. S. (2001).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1), 51-75.
- Noorderhaven, N., Thurik, R., Wennekers, S. and Van Stel, A. (2004). The role of dissatisfaction and per capita income in explaining self-employment across

- 15 European countr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5), 447-466
- Pinillos, M. J. and Reyes, L. (2011).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t-collectivist culture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evidence fro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37:23-37
- Salimath, M. S. and Cullen, J. B. (2010).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al effects on entrepreneurship: a synthesis of nation-leve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Analysis*, 18(3), 358-385.
- Van Stel, A., Carree, M. and Thurik, R. (2005).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activity on nat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24(3):311-321
- Wennekers, S., Thurik, R., Van Stel, A. and Noorderhaven, N. (2007). Uncertainty avoidance and the rate of business ownership across 21 OECD countries, 1976-2004.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17:133-160